

로 하여금 더 큰 지복을 누리게 해주었다네. 폴과 비르지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거나 각자의 깨달음을 나누었지. 그래, 깨달음일세. 설사 그 깨달음에 약간의 잘못된 생각이 섞인다 하더라도, 순수한 인간이 두려워할 만큼 위험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게야. 자연이 키운 두 아이는 이렇게 자랐다네. 어떤 걱정에도 이마를 찡그리는 법이 없었고, 어떤 무절제도 두 사람의 피를 더럽히지 못했으며, 어떤 불행한 정염도 두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키지 못했어. 사랑과, 친진함과, 신앙심은 매일같이 두 사람의 외모며 태도며 움직임 안에서 두 영혼의 아름다움을 매만져 더없이 우아하게 가꿔나갔다네. 인생의 아침을 맞이한 두 사람의 삶은 싱그러움으로 가득했어. 마치 에덴동산에 나타난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과 같았네. 하느님 손에 빚어져 세상으로 나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다가가, 처음에는 오누이로서 대화를 나누던 그때처럼 말이야. 비르지니가 온화하고 겸손하며 이브처럼 자신감이 넘쳤다면, 폴은 아담을 닮아 남자다운 체격에 아이 같은 순박함을 함께 지니고 있었네.

어쩌다 비르지니와 단둘이 있을 때면(폴은 나한테 이야기를 수천 번도 넘게 해줬다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폴이 이런 말을 했다더군.

“피곤할 때마다 널 보면 피로가 풀려. 산꼭대기에서 저기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네가 언뜻 보일 때면, 우리 과수원